

# 김한길 vs 反김한길 ... “명분없는 담합” “아름다운 단일화” 신경전

민주 5·4 전당대회 광주·전남·전북 합동연설회

## ‘右클릭’ 정체성 논란 ... 호남 인사 소외 민심 자극도

민주통합당 5·4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강기정 김한길 이용섭 후보(기호순)는 20일과 21일 전주와 화순, 광주에서 잇따라 합동연설회를 열고 호남 민심의 지지를 호소했다.

광주·전남 합동연설회에서는 범주류 후보 단일화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고 당의 노선을 중도 지향으로 보완하는 방향에 대해서 후보들 간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반 김한길 단일화=21일 광주·전남 합동연설회에서는 범주류 후보 단일화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며 ‘김한길 대 반(反)김한길 전선’이 첨예하게 형성됐다.

범주류의 강기정, 이용섭(기호순) 후보는 자신들의 홈그라운드인 이곳에서 ‘이달내 단일화 성사’를 선언하며 비주류 좌경적인 김한길 후보의 대체론 차단을 시도했다. 강·이 후보는 단일화 성사를 약속하고, ‘호남 적 자문·지도자론’을 내세우며 지역 정서에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김 후보는 이들의 단일화를 사실상 ‘명분없는 담합’으로 규정, 정면으로 맞받아치면서 양측간 장외 신경전이 최고조로 치달았다.

강 후보는 이날 합동연설회에서 “본격적인 당원 투표가 시작될때까지 반드시 단일화를 시킬 것”이라며 참

석 대의원 및 당원들에게 동의를 구했고, 참석자들은 박수 갈채로 답했다.

이 후보는 “아름다운 단일화를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라며 “단일화는 대선 패배에 따른 지역민의 아픔 치유와 호남의 정치력 복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한길 후보는 연설회 직전 화순의 한 식당에서 가진 오찬 기자회견에서 범주류 후보 단일화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볼지 큰 걱정”이라면서 “정치에서의 연대, 단일화 효과는 줄어들고 있다.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이·박’(이해찬-박지원) 담합 논란이 빚어졌던 지난해 6·9 전대 당시 이 전 대표에게 패한 것을 거론하며 “담합 때문에 졌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DJP(김대중-김종필) 단일화로 50년만의 수평적 정권교체라는 명분이 없었다면 지탄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단일화 추진을 사실상 ‘명분없는 담합’으로 정의한 것이다.

김 후보는 또한 자신을 향한 강·이 후보의 협공 양상에 대해 “김한길 상 처 내는 게 지겹지도 않느냐”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혁신 로드맵’을 발표한 뒤 자신을 ‘대통령 제조기’,



2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 및 광주시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후보자들이 손을 맞잡고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이날 연설회에는 문희상 비서대장위원장, 이낙연 전대 선거관리위원장, 강은태 광주시장, 임내현 광주시당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길 불패’로 칭하며 “내가 지휘한 선거는 진 적이 없다”고 자신했다.

◇중도 ‘우클릭’ 논란=20일 열린 전북합동연설회에서 각 후보는 최근 불거진 민주당의 ‘우(右)클릭’ 논란을 놓고 다른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이 강령 및 정강·정책에서 ‘한미FTA 재검토’ 문구를 삭제하고 ‘북한 인권과 관련하여도 관심을 갖는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현재 당내에서 정체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강기정 후보는 ‘강령 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민이 민주당에 신뢰를 주지 않고 있는데는 너무 잦은 강령 개정과 정책 혼선 때문이 기도 하다”며 “불과 1년 반 전에 개정

한 강령을 이번 전당대회에서 또 고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민주당의 노선은 진보개혁이며, 이를 훼손시키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길 후보는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사랑을 되찾는 것”이라며 “국민의 먹고사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호남 민심 잡기=이날 광주·전남 합동연설회에서 당 대표 후보에 출마한 세 후보는 호남 민심 잡기에 열을 올렸다.

강기정 후보는 “호남을 향해 ‘탈(脫)호남’, ‘대선 호남후보 필패론’이

라며 가슴에 상처를 줄 때도 호남은 민주당을 묵묵히 지켰다. 더 나아가 이번 대선에서는 압도적 지지로 우리 민주당의 자존심을 지켜냈다”고 말했다.

김한길 후보는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탕평인사는 어디가고, 호남인은 철저히 배제당하고 있다. 호남이 인사와 지역개발에서 가장 소외당하고 있는 현실을 반드시 바꿔놓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후보는 “60년 민주당이라는 역사는 바로 호남의 역사였다”며 “호남인들은 민주당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있어 행복했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었다”며 호남 민심을 자극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 기간교통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윤진식 의원 법안 제출

낙후지 투자 확대 기대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남 등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공공교통시설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결과와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도 추진된다.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은 21일 보도

자료를 내고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과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국가재정법개정안은 시행령에 정해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을 법령에 반영하고,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효율화법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간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점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날개 단 ‘수산 전남’ ... 광양항에 해양특구 유치 나선다

### 해수부 업무보고와 전남도 대응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13년 업무 추진계획’은 해양 주권을 강화하고, 수산과 항만을 집중 육성해 미래 자원을 만드는 청사진이다.

이에 맞춰 전남도는 해양경제특별구역 유치를 비롯해 섬발전진흥원 설립과 양식업 조성 등 13개 사업, 630억원을 내년도 국비 예산에 반영해 주도로 건의하기로 했다.

◇해양경제특별구역 선점 경쟁=해수부 업무 계획 중 눈길을 끈 것은 해양영토관리법과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이

다. 해양영토관리법을 만들어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울릉도에 해양경찰서를 만들어 독도 경비에 나서고, 무인도 2653곳의 관리 체제도 구축한다.

해양경제특별구역은 일종의 경제자유구역을 향한 인근에 조성하는 것이며 광양항,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등 국내 주요 항만이 후보지다.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광역자치체에 1개만을 허가해주기 때문에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은 한 지역에 2개의 경제자유구역을 갖는 효과가 있어 지자체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해수부의 발표와 함께 부산지역에서는 “부산항이 가장 유력하다”며 여론 물이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는 해수부 업무 계획 중 항

만·물류 분야 육성 계획이 부산·경남에 치우쳐 있다고 보고 22일 ‘2013년 중앙부처 업무계획 대응방안 보고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해수부 계획대로 항만·물류 분야가 부산·경남에 집중되면, 해양경제특별구역 유치도 물 건너 갈 수 있어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전남 수산정책은 ‘날개’=수산업에 대한 각종 장기 비전을 담은 해수부의 업무 추진계획은 전남 수산 정책에 날개를 달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가 발표한 발달양식장, 양식업 등은 이미 전남도가 관련 연구를 마쳤거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도내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설립과 수산 식품산업 산지거점 단지 추가 조성도 기대된다.

전남도는 자체 추진하거나 새롭게 발굴된 사업 중 양식업 조성 등 13개 사업이 해수부 사업에 포함됐다고 보고, 서둘러 2014년 국고 지원 요청에 나섰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해수부의 무인도서 관리와 해양 영토 강화 정책에 맞춰 섬발전진흥원을 설립하고, 전북 양식업에 이어 해상 양식업 추가 조성 할 계획이다.

또 해수부 업무 계획에 맞는 ▲갯벌철계양식장 ▲해양레저 체험교육센터 ▲해안 오토캠핑장 ▲마리나 직업교육센터 ▲수상레저 스포츠센터 ▲복합형 여항개발 ▲북포 신항내 목재 전용부두 건설 등 신규 사업을 발굴, 국고 지원을 건의한다. 이 밖에 ▲연안바다목장 ▲소규모 마리나 시설

### ■ 해수부 업무계획 반영 전남도 사업

사업명(사업기간)	사업비	2014 국고건원
섬 발전진흥원(2014)	1000	10
전북양식업 조성(2013~2017)	450	75
해상양식업 조성(2014~2016)	60	20
갯벌 철계양식장 조성(2014)	100	50
연안바다 목장 추가 조성(·)	60	30
소규모 마리나 시설(2013~2017)	440	200
해양레저 체험교육센터 건설(·)	170	50
해안 오토캠핑장 조성(2014~2015)	90	30
자연 치유의 해변 기반시설 조성(·)	70	35
마리나 전문 직업교육센터 설립(·)	60	20
수상레저 스포츠센터 조성(·)	100	30
복합형 여항 개발(2014~2017)	900	50
북포 신항내 목재 전용부두 건설(·)	1000	30

▲치유의 해변 기반시설 등 전남도가 추진했던 사업들도 해수부 업무보고에 포함돼 원활한 국고 지원이 기대되고 있다.

전남도는 오는 6월까지 관련부처를 방문해 이들 계획이 정부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빛어울수 - 김중두

체력이나 많이 비축해 놓으세요

광주 대표 상수원 - 동복호

## 빛어울수

깨끗한 광주의 수돗물

빛어울수 믿을 수 있습니다.

광주의 상수원은 무등산과 백야산의 청정하 산간계곡에 위치하여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유입되지 않은 좋은 조건을 기본으로 자동으로 정수약품을 주입하고 수질관리가 철저하여 깨끗합니다.

- 현재, 상수원수는 좋은 조건의 수질상태 유지
- 미국, 일본,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한 수질기준에도 적합한 물
- 국제수준의 수질검사 능력을 갖춘 수질연구소에서 철저한 수질검사를 거쳐 생산

빛어울수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시민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수돗물 절약 실천 사항

- 샤워, 세수, 설거지, 세차 등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할 시에는 받아서 사용한다.
- 수도꼭지 등 누수방지를 위해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절약형 샤워꼭지를 부착한다.
- 하수구에 음식물 찌꺼기를 버리지 않는다.
- 샴푸, 린스, 합성세제의 사용을 줄인다.
- 한번 사용한 물을 재 사용한다.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https://water.gjcity.net>